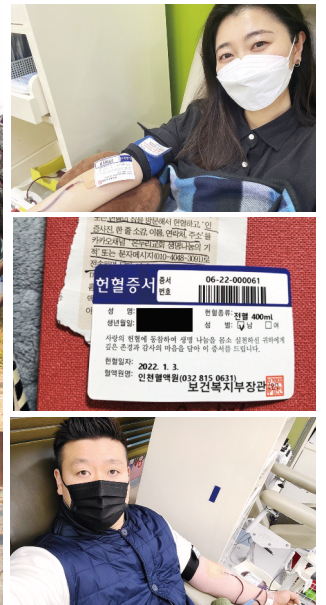


온 누리와 함께하는 세 가지 캠페인!



창조질서 회복시키고, 이웃과 생명 나누고, 생명 소중함 일깨우고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생명나눔의 기적,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온누리교회가 아주 뜻깊은 세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그것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과 생명나눔의 기적은 4월 17일까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4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작은 실천을 하면서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캠페인이다. 3월 셋째 주 주제는 '물'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창 1:9)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에서 '물 아껴 쓰기, 세탁물 가득 채워

세탁기 돌리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다.

'공기'를 주제로 이어진 3월 둘째 주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참가한 서민영 성도와 박영미 성도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열심히 걷고 있다"고 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참여하는 '인증사진'과 '한 줄 소감'을 카카오톡채널 '창조질서회복' 또는 문자메시지(010-6442-0191)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게재되고, 소정의 상품을 준다(관련기사 4면).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돕고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캠페인이다.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찾으면 된다. 헌혈카페에서 헌혈하고 헌혈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윤유조 성도는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있다"고 했고, 순종대 성도는 "무엇보다 소아암 환자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관련기사 5면).

온누리교회 주차장으로 헌혈버스가 방문

하는 생명나눔의 날 2차 행사가 3월 20일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국제적인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4월 10일까지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길길 인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기도 봉사자들이 낙태 종식과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존중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위운동이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리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기도 봉사를 담당했다.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QR 코드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안정미 집사(신촌감리교회)는 "더 많은 교회가 생명사랑, 생명존중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6면).

/ 정현주, 김영선, 홍하영 기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개강

3월 15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공동체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3월 15일(화) 개강한다. 3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3월 15일 개강 수련회를 시작으로 한건수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김숙경 소장(결혼예비학교 강사) 등의 강사가 이어진다. 온라인커뮤니티 담당 목회자들은 <생명의 삶> 묵상 말씀 나눔을 주제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한다. 온라인커

뮤니티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학기 참여했던 성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온라인커뮤니티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3월 4일(금) 보이는 라디오 '슬기로운 말씀생활'을 라이브로 진행했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가 진행하고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김도현 찬양사역자(CCM '성령이 오셨네' 작곡가)가

출연했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배 예약 시스템 변경 '좌석 QR코드' 시스템만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서) 시행 중단에 따라 3월 8일(화)부터 온누리교회 예배 예약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출입구를 개방하고, '예배 예약 및 바코드' 확인 없이, '좌석 QR코드' 시스템만 운영한다.

3월 비전현금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산불피해 지역 주민 지원

3월 12일과 13일 봉헌하는 3월 비전현금은 우크라이나 난민과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현재 몰도바 스테우체니와 보지예니 지역에 있는 피란민 임시수용소에는 80여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NGO 더 멋진세상이 주축이 되어 90일 분량의 식량 및 위생용품, 의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울진, 삼척, 강릉 등 산불피해 면적이 3월 11일 오전 6시 기준 2만3천993ha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1.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 온누리교회의 지원과 노력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와 후원입니다”

최전선 김태한, 요안 선교사의 눈물 그리고 호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합의가 결렬되면서 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드는 형국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금까지 약 15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난민이 되었다”면서 “1천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교회가 NGO 더멋진세상을 필두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선 까닭이다. 그 최전선에 김태한 선교사(우크라이나)와 요안 선교사(몰도바)가 있다. 두 선교사는 한목소리로 “난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와 후원”이라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중보기도를 거듭 부탁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루마니아에서 피란민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태한 선교사(위)와 몰도바 피란민 임시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아동들(아래).

“저도 고향을 떠난 난민입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고향이 된 김태한 선교사 가정도 이번 전쟁으로 난민이 됐다.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떠날 때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했다.

“1월 말부터 교민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 모두가 전쟁이 발발해도 성도와 이웃들 곁에 함께 있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철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권고가 있어서 하는 수없이 잠시 교회와 사역을 접어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주일예배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는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럴겠습니까? 목사와 선교사가 가족 같은 성도들을 두고 떠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남겨두고...
그 참담한 심정 토로한 김태한 선교사

2월 14일 항공편으로 독일에 도착한 김태한 선교사는 불가리아 소피아에 임시거처를 구했다. 금방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양상이어서 마음이 몹시 힘들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 식구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와 그 근교에 남아 있습니다. 매일 여러 차례 메신저로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하실에 대피해 있고, 도시를 떠나 외곽으로 피신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방해서 거주할 곳이 없는 성도들이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교전이 있었고, 포격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정부와 대사관의 강력한 권고 때문에 잠시 나왔지만 금방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결국 성도들을 전장에 두고 나온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자신의 몸과 마음도 추스르지 못했는데

김태한 선교사는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길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저희 부부는 지금 루마니아 북부 수체아바 난민 캠프에 와 있습니다. 난민 캠프 근처에 머물며 아내와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로 가기 위해 난민 캠프를 떠나는 사람도, 난민 캠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고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저희 부부는 통역을 돕고 있으며, 주일예배를 인도하면서 불안해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갈급한 심령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김태한 선교사는 난민들을 돕는 일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난민들을 돌보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 몇몇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고, 인명 피해가 없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랜 기간 난민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 난민 상황을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피란민 임시수용소 운영 중인 요안 선교사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남서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공습하면서 난민이 대거 발생했다. 몰도바에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요안 선교사는 전문이 있을 때부터 ‘스토우체니기술&어학전문학교’와 ‘보지에니센터’를 피란민 임시수용소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곧바로 섬길 수 있었다.

“몰도바는 소비에트연방공화국 시절 전략적으로 착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의 침략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 분위기에서 긴장감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몰도바 정부로부터 ‘스토우체니기술&어학전문학교’와 ‘보지에니센터’를 임시 피란민 임시수용소로 인정받아 난민들에게 쉽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안 선교사가 처음 만난 난민들은 교회 성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데리고 온 두 가정이다. 이 두 가정은 피란민 임시수용소에 도착해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틀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피란민 임시수용소에서 섬긴 첫 난민은 부부와 자녀 하나를 둔 가정, 성인 여성 두 명과 자녀 하나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국경에서 극심한 추위와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의사들의 말로는 ‘정신 혼절’이라고 했습니다. 2~3일 정도 방 안에서 몸과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피란민 임시수용소에서는 짧게는 5~7일부터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다. 피란민 임시수용소가 늘어나는 난민들을 감당하기에는 시설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피란민 임시수용소 2곳에서 총 80여 명이 지낼 수 있는데 공간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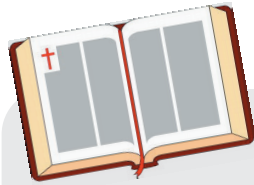
“몰도바에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대부분 다른 국가로 이동합니다.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임산부처럼 장기간 지내야 하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피란민 임시수용소를 따로 꾸릴 예정입니다. 식사부터 침구류, 빨래할 세제까지 어느 것 하나 넉넉한 게 없습니다. 많은 후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요안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와 기도라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우크라이나 성인 남성들은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경 앞에서 아버지와 헤어지는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갓난아이를 품고 몰도바로 넘어와 이들을 우는 여인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섬김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불안과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피란민 임시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 계좌: 하나은행 573-910011-52905
문의: NGO 더멋진세상 02-2271-2248



주일강단



이상준 목사

누군가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면서 데살로니가교회를 칭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구원받는 경우입니다. 둘째, 믿음이 없는 행함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벳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15-16절).

말뿐인 평화, 말뿐인 사랑입니다. 모세오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하나님이 각별하게 당부하셨는데 그것을 아는 유대계 크리스천들이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가 심각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크리스천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당신이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부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나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형제를 도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적 관점에서 보면 행위구원적 관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사복음서의 관점으로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과 똑같은 어조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났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험벳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마 25:35-36).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

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현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17절).

많은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활동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안에 참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실전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체현이 되고 그것이 흘러넘치는 삶이 나타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떨니다’”(18-19절).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가능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눌 수 없는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느냐?”는 말씀에서 ‘믿는다’는 히브리어로 ‘아다’입니다. ‘안다’는 뜻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 실천으로 나오지 않는 믿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지식이 구원에 주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노력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마 22:29).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당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야고보서 2:14~26

“믿음은 행함과 동역하고,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20절).

종교적인 실천만 강조하는 율법주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적 지식만 쌓는 영지주의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자기성찰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21절).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구체적인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의아한 주장입니다.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 신칭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정반대로 아브라함을 ‘이행칭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듭니다. 한 인물, 한 사건을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

이삭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리는 실천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아브라함은 긴 인생 여정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긴 여정입니다. 칭의는 순간이지만, 성화는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동역합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22절).

첫째, 믿음은 행함과 동역합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선행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

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24절).

믿음으로도 칭의가 이루어지지만, 행함으로도 칭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 모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여러분, 교리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진리를 의아해하거나 부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중물로 부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고, 삶 가운데 거룩한 순종의 열매들이 맺히지기를 축복합니다. 도덕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그 생명이 스스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당연히 열매 맺게 됩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압박하면 종교이고, 윤리 도덕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면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결코 제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둘째,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

이미 주어진 구원은 완성입니다.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물을 주고, 가꾸고, 돌보는 일에 가까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대한 순종으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죽음이자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의 마중물을 부어 주셔서 내 삶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결실이 맺히게 해 줄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남장우 형제, 박희윤 집사가 제안하는

‘공정여행’, ‘아나바다’ 운동

온누리교회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시작했다. 3월 2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16일과 17일(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창조질서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매일 작은 실천을 하면서 창조질서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3월 셋째 주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창 1:9) 말씀을 묵상하고, 깨끗한 물을 되살리는 작은 실천을 한다. 남장우 형제(S브릿지공동체)와 박희윤 집사(대전온누리교회)가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다. ‘공정여행’과 ‘아나바다’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공정여행을 하고 있는 남장우 형제(좌)와 박희윤 집사가 '아나바다' 한 신발과 가방(우).

남장우 형제(S브릿지공동체)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시작하고 굉장히 뿌듯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작은 실천이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실 환경문제에 큰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일회용품 좀 덜 써야지’라고 의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단순한 환경과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매우 뜻깊은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서 제안하는 실천 중에 어려워서는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습관이 만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전기 코드는 뽑으면 되니까 가장 쉬웠습니다. 불필요한 등을 끄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남장우 형제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뿌듯한 일상을 보내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평소 강조하는 ‘공정여행’이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과 일맥상통했기 때문이다. ‘공정여행’은 여행지의 자연을 보호



하고, 여행지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는 운동을 의미 한다.

“제가 평소 공정여행 강의를 하면서 현지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소비하자고 제안했는데 정작 저는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몰랐습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제 일이 더욱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도 공정여행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나바다 운동’ 전도사 박희윤 집사

‘아나바다’ 운동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의 준말이다. 1998년 IMF 당시 등장한 운동이다. 박희윤 집사(대전온누리교회)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참가하면서 아나바다 운동이 다시 떠올랐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박희윤 집사는 불필요한 소비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알뜰한 면도 있지만, 소비가 공급을 만들고, 과도한 공급이 자원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텀블러를 쓰고, 안 쓰는 전기 코드를 뽑는 것은 저에게 생활입

니다. 집에서도 식구들을 쫓아다니면서 불 끄는 게 일상입니다. 은퇴하고 금연지도원과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멀쩡한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것을 또 삽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는 멀쩡한 것만 모아 팔아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이 나올 정도입니다.”

박희윤 집사는 소비로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

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기쁨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물건은 사는 순간 헛 것이 됩니다. 좋은 차, 좋은 물건 쓴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질서가 회복되면 창조세계가 회복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아나바다 운동’에 앞장서 주십시오. 무분별한 소비로 남용되는 창조세계를 회복시켜주십시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줄 소감

대중교통 이용은 효율적이고 오히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며 적당한 걷기도 포함되어 건강에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유경 성도

전기 아끼기 실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천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 이영희 성도

강아지와 산책하며 걷는 것을 실천 중입니다.

/ 김은진 성도

주일에 가까운 지체와 카풀을 하다가 이번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 박영미 성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계단으로 영차영차 오릅니다.

/ 이호진 성도

머리 감거나 샤워 전 찬물은 버리지 않고 모았다가 변기를 내립니다. 변기 물이 깨끗할 필요 없으니까요. 차 운행은 줄이고 걸어 다닙니다. 열심히 불도 끄고 코드 뽑고 나의 약간의 불편함이 지구에게 희망이 된다면 실천해보아요.

걷기운동 도전! 오늘 9,700보 걸었습니다.

/ 박양선 성도

/ 이자영 성도

◎ 환경 지키는 작은 정보

텀블러 사용도 지혜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서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텀블러는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 되었다. 그런데 일각에서 ‘텀블러가 과연 환경친화적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텀블러 사용에 대한 흥미로운 수치가 여럿 있다. 캐나다 환경보호 재활용단체 CIRAIG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폴리프로필렌 텀블러는 50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 미국의 수명주기 사용 에너지량 분석 연구소에 따르면 유리 텀블러는 15회, 플라스틱 텀블러는 17회, 세라믹 텀블러는 39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 결론은 텀블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야 환경에 유익이 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의하면 매일 한 잔씩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6개월 이상 텀블러를 사용해야 유익이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텀블러를 선택하는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플라스틱을 피해야 한다. 플라스틱은 재활용도 되지 않을뿐더러 플라스틱과 다른 소재가 혼합되면 분리배출도 어렵기 때문이다. 스테인리스로 된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좋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텀블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집 찬장에 텀블러가 여러 개 있다면 무료 나눔을 하는 것도 좋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당신은 누군가의 기적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한 ‘이병훈 성도’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혈액보유량이 두 달 가까이 3~4일분에 머무르고 있다. 3월 11일 기준 혈액보유량이 3.9일분이다. 적정보유량(5일)의 70~80%에 불과하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수급 위기 ‘주의’ 단계인 3일분 미만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혈액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한창이다. 4월 17일 부활절까지 이어진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16개의 교회 및 단체에서 성도 2,751명이 헌혈로 생명과 사랑을 나눴다(3월 11일 기준).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병훈 성도(강동온누리교회)가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생명과 사랑을 나눴다.

요즘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웃들에게 헌혈로 생명과 사랑을 전하느라 바쁘다. 하루가 멀다하고 헌혈의 집, 헌혈카페, 헌혈 버스 등에서 헌혈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누리교회 성도 682명이 헌혈했다.

조금 더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을 나누는 성도가 있다. 이병훈 성도(강동온누리교회)는 며칠 전 조혈모세포 기증을 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골수 혈액 속에 약 1%가량 존재하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세포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 혈액암 환자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병든 조혈모세포를 모두 소멸시킨 다음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면 혈액암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혈액암 환자들에게 건강한 조혈모세포 기증이 꼭 필요한 이유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원한다고 아무에게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적합성항원형’ (HLA형, 백혈구 항원을 의미)이 같아야 한다. 문제는 두 사람의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일치 확률이 5%, 형제자매의 일치 확률이 25%로 그나마 높은 편이다. 가족 중에 환자와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없으면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타인과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할 확률은 약 2만분의 1이다. 이 기적 같은 확률로 환자와 기증자가 연결된다.

작은 마음과 실천이 기적을 만든다

이병훈 성도가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20여 년 전 등록해둔 유전자 정보 덕분이었다.

“대학생 때 헌혈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두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일 하나 더 하면 좋지’라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문화상품권을 한 장 더 준 다길래 신청할 마음이 생기기도 했구요(웃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증 의사를 묻길래 기쁜 마음으로 ‘기증하겠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이병훈 성도가 조혈모세포 기증 연락을 받은 것이 처음은 아니다. 7년 전에도 연락을 받았었다. 그런데 기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아쉬운 마음에 ‘이번에는 기필코 기증하리라’ 다짐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7년 전에도 연락을 받았었는데 환자분의 건강이 좋아지셨는지 아니면 기증을 받지 못할 만큼 더 나빠지셨는지 끝내 기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또 기회가 생기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려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검색해보신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과 부작용 사례를 보시고 걱정하셨습니다. 아내가 삼일 밤낮으로 어머니를 설득해줘서 간신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할 수 있었다. 기증을 위한 검사용 혈액도 채혈하고, 사전 건강검진도 마쳤다. 그런데 코로나 19라는 변수가 있었다. 이병훈 성도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입원하기 전 한 달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집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그 귀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기적을 선물했다.

“기증하기 전에 실시하는 채혈과 건강검진을 모두 마치고 입원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2박 3일 병원에 입원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엄청 심각하게 퍼지더라고요.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입원할 수가 없어서 기증이 무산되고, 환자분은 기증 가능한 사람을 또다시 기다려야 하니까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몰라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가족들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껌딱지인 아들과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구요. 이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아무 문제 없이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증자는 입원 전 백혈구 성장 촉진제라 불리는 ‘과립구집락촉진인자 피하주사’를 맞는다. 조혈모세포가 혈액으로 잘 나오게 하도록 백혈구 수치를 6~7배가량 증가시키는 주사다. 기증 3~4일 전부터 입원 전날까지 총 6~8번의 주사를 투여한다.

이병훈 성도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입원했다.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해 쇄골(빗장뼈)에 히크만카테터(약물 주입 및 채혈을 위해 정맥에 삽입하는 관)를 삽입했다. 불편하고 아팠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채집이 진행되는 5시간 동안 이식받을 환자를 위해 기도했다.

“보통은 양팔에 바늘을 꽂고 채집을 하는데 저는 팔 혈관 상태가 안 좋아서 쇄골에 관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통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2만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기증하게 하시고, 입원 전날까

지 여러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무사히 채집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의료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세포가 환자분께 무사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병훈 성도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환자에게 짧은 인사를 남겼다.

“환자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주신 인연이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꼭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환자와 기증자의 유전자형 일치 확률이 매우 낮아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기증희망 등록’을 해야 환자들이 이식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함께 용기 내서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주십시오. 이웃들에게 귀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방법 및 절차

1.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서 작성,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용 혈액 3~5ml 채혈
2. 기증희망자 등록
3. 조혈모세포 이식 대가지와 HLA 일치 여부 및 기증 의사 재확인
4. 건강검진 시행
5. 조혈모세포 기증
6. 퇴원 이후 회복 검사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낙태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4월 10일까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도 봉사자들이 태아 생명보호와 낙태 반대 피켓을 들고 침묵기도 시위를 하고 있다.



소리 없는 외침이 젊은이들의 거리 흉대에 울려 퍼졌다. 세계적인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서 침묵 기도로 시위하는 기도 봉사자들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국제 낙태 반대 기도운동단체 '40 days for life'에서 낙태 종식과 낙태 반대를 위해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운동이다.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진행된다. 기도 봉사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낙태 반대 및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 기도로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경의선숲길을 방문했다. 아직 쌀쌀함이 채 가시지 않아 추운 날씨였지만, 낙태 반대 및 낙태 종식을 위해 침묵 기도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홍대입구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를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갔다. 강아지 산책시키는 주민, 쇼핑하러 나온 사람, 삼삼오오 대화하는 대학생들,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사람들 사이에 이질적인 사람들이 끼어 있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도 봉사자들이다.

“우린 모두 태아였습니다.”, “생명은 가장 첫 번째 인권입니다.”, “낙태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봉사자들이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를 외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뜻은 하나였다. 낙태 없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

“세포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마침 피켓을 1초 동안 보고 지나가던 중년 남성에게 일문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 실례지만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낙태에 대해 어떻게...”

“관심 없어요!”

입을 떼기도 전에 거절당했다.

그래, 관심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지. 이번에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봐야지.

“전 잘 몰라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거절당했다. 실망하던 찰나 순진한 인상의 남학생 2명이 시야에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그런데...

“태아 생명도 중요하죠. 그러나 낙태는 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아기를 좋은 환경에서 낳고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작정 낳으면 부모나 아기 모두에게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낙태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여대생 이가연 씨(22살, 무교)에게 물어봤다. 그녀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다.

“저는 낙태(落胎)란 말 대신 ‘임신중절’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턱대고 낙태 반대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세포(배아)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갓 수정된 아기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단다. 낙태 옹호론자들이 강조하는 말을 여대생에게 직접 들었더니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비단 이 여학생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임신과 출산의 축복과 신비, 태아의 인권, 낙태의 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를

이병찬 집사(강남B공동체)는 지난해 한 설교를 듣고 ‘프로라이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기복 목사님이 젊었을 때 낙태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랐고, 후회되고, 회개한다는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시다. 저 또한 낙태에 대해 무지했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열렸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청했다.

“단 한 시간이라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낙태와 태아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들이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피켓을 들고 침묵 기도 시위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세상에 퍼져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병찬 집사는 프로라이프 운동에 참여하면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각종 강의와 세미나를 들으며 공부했다. 이병찬 집사는 이번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수요일은 온종일 거리에서 기도한다.

“우리가 동물보호에 대해서도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정작 태아보호를 위한 외침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1년 낙태 건수가 30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하면 5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인데 아무렇지 않게 낙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먹먹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고 낙태를 고민하던 사람이 포기하고, 낙태에서 구제받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정현 집사(강남D공동체)네는 온 가족이 함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딸 심유정 자매(허브대학부, 24세)와 함께해서 감사하다. 심유정 자매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

“낙태를 마음먹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기를, 생명의 존엄성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위기에 처한 태아와 미혼모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인데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생명을 없애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 010-2426-4620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참가자 소감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 아이는 다 키웠으니까 나와 상관없다’며 뒷집 지지 말고 한국 교회와 부모세대,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합니다.”

/ 안정미 집사(신촌감리교회)

“태아는 최약자입니다. 스스로 안전과 생명을 지킬 힘이 없는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사회, 교회, 성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딸, 내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가장 약한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 임영동 목사(송파B공동체)

“매해 낙태되는 태아가 30만 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합하면 50만 명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가 세상의 빛도 못 본채 스러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낙태 반대를 위해, 생명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고.”

/ 김승훈 목사(강남B공동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주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권장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와 가치관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잘 가르쳐주시고.”

/ 서윤화 대표(아름다운피켓)

“이곳은 카페, 교회, 일터입니다”

스타트리협동조합 헤브론 카페 오픈

스타트리협동조합(대표 이경원 선교사)이 지난 3월 1일(화) 헤브론 카페를 오픈했다. 이제 카페에서도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 카페는 이주민들을 위한 교회이자 일터이다. 헤브론 카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74에 있다. 지금 이주민들은 헤브론 카페에서 신앙을 키우고, 예배하고, 카페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 또 다른 헤브론 카페를 세우는 비전도 키우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헤브론 카페에서는 이주민들이 신앙을 키우고, 교제하고, 섬기고, 카페 비즈니스를 배운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정문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헤브론 카페가 나온다. ‘연합’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헤브론 카페는 2층 카페, 1, 5층 교제실로 구성된 아담한 공간이다. 개업한 지 1주일밖에 안됐는데 벌써 찾는 발걸음이 많다. 지난 3월 6일(주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아랍어예배가 헤브론 카페에서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20여 명쯤 모여 예배드리기 딱 알맞은 공간이었다. 2

층에서 서빙고온누리교회 아랍어예배가 예배를 드릴 때 1, 5층 교제실에서는 이경원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어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초대 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카페와 이주민을 위한 비즈니스를 더하다

카페에 복음을 더한 모델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두세 사람이 모여 먹고 마시는 곳이 카페이

고 교회라면 초대 교회부터 카페와 복음은 함께였다. 스타트리협동조합은 카페에 이주민을 위한 비즈니스를 더했다.

교회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카페 안 가본 사람은 없다. 카페는 남녀노소, 종교를 불문하고 가장 대중적인 문화공간이다. 교회 안 다니는 이주민들도 카페라면 부담 없이 찾아온다. 스타트리협동조합이 카페를 오픈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주민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대폭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또 이주민들이 찾아올 이유가 있어야 했다. 바로 그 이유가 이주민을 위한 카페 비즈니스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카페의 위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부분의 만남과 대화가 카페에서 이루어진다. 그만큼 카페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 많은 이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커피와 카페 운영을 배우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욕구를 겨냥해서 시작된 사업이 스타트리협동조합이다.

헤브론 카페에서 꿈을 키운다

헤브론 카페에서는 스타트리협동조합이 운영한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한 이주민들이 음료 제조와 카페 운영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온 자매들이 쉬

는 날 일을 돕고 있는데 포부가 제법 크다. 아비가일 자매(필리핀)는 5년 안에 필리핀으로 돌아가 카페를 오픈하는 게 목표다.

“저는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잘 만들고 싶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스타일의 커피와 카페가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헤브론 카페에서 많이 배워서 필리핀에서 카페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양한 도움을 주시는 이경원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빠빠 자매(인도네시아)는 국내에서 카페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 그 꿈을 스타트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스타트리아카데미’가 돕고 있다.

“저는 커피관련 일을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리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바리스타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현장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는 4월 고향으로 돌아가는 프리아디 형제(인도네시아)는 카페 창업을 위한 도움을 스타트리협동조합에 요청한 상태다. 인천에서 오래 근무한 프리아디 형제는 고향에서 ‘인천 카페’를 오픈할 계획이다. 스타트리협동조합에서도 다양한 시안을 만들고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헤브론 카페가 세워지는 일도 그리 먼 꿈은 아닌 것 같다.

사역 칼럼



이경원 선교사
(인도네시아예배,
스타트리협동조합)

스타트리협동조합은 무슬림 전도를 위해 시작됐다. 인도네시아어예배를 안산M센터에서 드렸는데 안산M센터가 교회라는 것을 안 무슬림들이 더이상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슬림들의 영혼 구원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인도네시아어 예배를 밖에서 드리겠다’고 노규석 목사님께 제안했다. 그랬더니 노규석 목사님께서 이주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해보라는 대안을 주셨다.

보통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4년 10여 개월을 거주하는데 그동안 신앙교육도 하고, 돈도 벌고, 커피와 카페 운영도 배워서 고향으로 돌아

가 카페(교회)를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 현지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또 다른 카페를 낳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카페를 찾다가 여러 사정으로 스타트리협동조합을 먼저 시작했다. 바리스타 교육을 시작했더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정이 있는 이주민들이 찾아왔다. 이주민을 섬기겠다는 많은 봉사자도 찾아왔다. 한국어교육, 재봉교육, 음식 교실, 다양한 원데이클래스 등 이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이 풍성해졌다. 특히 FA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인연을 맺은 단기선교사님과 상담과 케어를 도와주시는 권사님, 인도네시아어예배의 봉사자님들께 감사하다. 특히 카페를 함께 운영하실 인도네시아 제이슨 강도사님과 예람 사모님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리스타 교육을 7번 진행했는데 이주민 3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시스위로

삼촌이 첫 번째 열매다. 시스위로 삼촌은 친구들과 아내의 핍박에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다시 아내와 친구들을 품은 귀한 영혼이다. 한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인도네시아어 예배에 출석하며 형제자매들에게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7기 바리스타 교육에는 수강생을 두 명 보내주셨다. 그중에서 라흐맛 형제는 시스위로 삼촌을 통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졌다. 시스위로 삼촌이 라흐맛 형제의 기숙사로 찾아가 새벽 3시까지 간증을 한 것이다. 요즘 라흐맛 형제는 이단이 친구들을 전도하려 한다며 친구들은 자기가 전도해야겠다고 분발하고 있다. 토요일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던 주완도 형제도 2월부터 인도네시아어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토요일 바리스타 교육에 잠깐 왔던 누나들을 더 보고 싶으면서 일요일에도 나왔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다른 모임도 있는데

함께 할래?’라며 권유했더니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헤브론 카페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카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손님으로 왔던 소피와 줄리야가 영어 수업을 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덕분에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소피의 남자친구 중서 군이 매니저가 되어 영어 수업 두 반을 돕고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터키, 스코틀랜드, 중국, 프랑스 등 많은 유학생들이 카페를 찾고 있다. 카페를 열자마자 바로 사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정말 신난다. 필리핀공동체에서도 협동조합을 하고 싶다면 조언을 요청해왔다. 어떤 형태가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 비즈니스 성과도 중요하지만, 스타트리협동조합 헤브론 카페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명화로 읽는 성경

〈사복음서〉 저자들을 상징하는 네 가지 생물

페르난도 가예고의 ‘축복하는 그리스도’ (1495년경)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 중에 ‘축복하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스페인 화가 페르난도 가예고(1440~1507년)의 작품으로 그의 인생 후반기인

1495년경에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르난도 가예고의 그림 ‘축복하는 그리스도’는 그 제목처럼 세상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다른 배경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졌지만, 근엄하면서도 차분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압도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잔잔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들어 온 인류를 축복하고 있다. 통상 성화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는 두 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반대로 이 그림에 서처럼 세 손가락을 펴고 두 손가락을 오므리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두 경우 모두 두 손가락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살다 가신 예수님의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을 표시한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왼손에 지구의(地球儀)를 들고 정면을 응시한다. ‘왕이신 예수님’은 붉은색 제왕의 망토를 걸치고 있다. 지구의는 당신이 만물의 창조주이자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발은 맨발이다. 발은 직접 땅과 접촉하는 부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신는다. 신발은 더러운 먼지를 밟지 않게 해준다. 세속적인 권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반대로 땅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은 세속적인 지위를 버린 겸손한 태도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다(출 3:4-5).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은 모세처럼, 예수님의 맨발은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아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뒷배경에 그려진 ‘네 생물(Tetramorphe)’에 대해서는 독실한 성도들도 그 상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로 ‘넷’을 뜻하는 테



페르난도 가예고가 그린 ‘축복하는 그리스도’ (1495년경, 스페인 프라도미술관).

트라(tetra)와 ‘형태’를 뜻하는 모르프(morph)가 합쳐진 말이다. 훗날 네 가지 생물은 4대 복음사가의 상징이 되었다.

**천사, 독수리, 사자, 소
마태, 요한, 마가, 누가를 상징**

테트라모르페, 즉 네 생물은 각각 다음과 같이 4대 복음의 기록자들을 상징한다. 마태의 표상은 천사이고, 누가의 표상은 소 또는 송아지이다. 마가는 사자, 요한은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표상은 유럽 로마네스크 미술 이후 일반적으로 되었고, 서양 교회의 천장이나 벽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먼저 오른쪽 위에 날개 달린 사람,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이다. 왜 마태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성경에 의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자신의 언어도 있고 권능과 지혜도 가졌지만,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므로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나”(히 1:14).

요컨대 천사는 하나님의 곁에서 보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기도 하고, 세상의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이다. 마태복음은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

의 족보로부터 시작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 1:1).

이 계보는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인간의 몸을 빌려(Incarnation)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사처럼 예수님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행적을 기록한 메신저였다는 측면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인간에 가까운 천사를 마태의 상징으로 본 것 아닐까 싶다.

그림 왼쪽 위에는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보인다. 독수리는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들의 제왕이다. 또한 독수리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동물로 간주한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빛이기도 하다. 그런데 독수리는 빛을 바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동물이다. 사도 요한은 ‘우뢰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성격이 급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남아 십자가 아래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순종하는 등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요 19:23-27). 끝까지 남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요한의 모습이 빛을 바로 보고 받아들이는 독수리의 기상을 닮았기에 독수리가 요한의 상징이 된 것 같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31).

그림 왼쪽 아래에는 마가를 상징하는 날개 달린 사자가 보인다. 이사가서 40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시작한다. 담대하게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는 맹수의 제왕인 사자 같은 기상이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는 사자후(獅子吼), 즉 사자의 포효처럼 세상을 울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가복음 사가인 마가의 상징이 사자가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는 누가를 상징하는 소가 보인다. 누가복음 1장은 사가라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사가라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 헌신했다. 사가라의 희생적인 모습은 제사장인 예수님을 연상시킨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희생의 상징,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가라.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앞장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소는 어린 양과 함께 제단에 바쳐지는 대표적인 희생제물이다. 자연스럽게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그리스도를 연상시킨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사 1:3).

또한 소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메시아의 탄생을 먼저 알아보고 축하하는 우직한 동물로도 묘사된다. 이런 맥락에서 희생과 순종의 상징인 소가 누가를 상징하는 동물이 된 것 같다.

이렇듯 4대 복음의 저자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과 스타일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기록했다. 복음(福音)은 ‘복된 소리’라는 뜻이다. 영어로 복음을 뜻하는 ‘가스펠(gospel)’이나 ‘에반젤(evangel)’의 어원 역시 ‘좋은 소식(good news)’이라는 뜻으로 복음이란 한자어와 일맥상통한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복음사가들이 천사나 사자, 독수리나 황소처럼 우직하게 때로는 웅변하게 세상에 복된 소리를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참된 제자, 참된 증인이 되라는 뜻(행 1:8)을 페르난도 가예고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같다. 그런 제자, 그런 증인들에게 분명 예수님은 약속하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

대학부 시절 담당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주일 한 번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6일의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 그 영향 때문인지 목회하면서 주일예배만 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다.

좋은 예가 하나 있다. 누가복음 10장 38~42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다.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칭찬받고, 마르다는 예배하는 동안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없이 염려하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꾸중을 듣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니다. 예수님의 꾸중은 일에 대한 태도를 꾸짖은 것이었다. 마리아는 즐겁게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즐겁게 일하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

는 것은 예배는 중요하고, 일하는 것은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일할 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일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신앙훈련이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전심을 다해서 즐겁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한다.”

예배다. 일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는 소극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될 수 있지만, 일은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방법을 택하셨다. 예수님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시키셨다. 만약 마리아가 즐겁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다면 마리아도 꾸중을 들었을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만약 예배를 섬기는 일이 하찮은 것이라면 누가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려고 할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노동이 곧 예배”라는 말이 있고 “삶의 예배

가 진정한 예배”라는 말이 있다. 예배든 일이든 전심을 다해서 기꺼이 주께 하듯 하면 된다. 오히려 일상에서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 훈련만 받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자기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소극적 확장)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자기 밖으로의 하나님 나라 확장(적극적 확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신앙훈련이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그곳이 가정이거나 직장이거나 교회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나 봉사자이건, 일터이거나 학교이거나 무엇을 하든지 전심을 다해 즐겁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삶의 예배자들이여, 화이팅!!



안사무엘 목사
(CHPLU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결혼을 지키는 약속 ‘부부 규칙’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많은 규칙이 있다. 결혼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부 규칙은 결혼생활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다. 부부는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부가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 결혼생활은 극단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부부 규칙에는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고, 말씀에 근거를 둔 지혜로운 조언을 따라서 세우는 규칙이 있다. 많은 부부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엡 4:26)는 말씀을 부부 규칙으로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보통 이 말씀을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서로에 대한 원망과 시비를 풀고 잠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날의 갈등은 그날 해결하라는 적용을 하게 된다. 부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의 감정이 극에 달하고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더라도 하루가 가기 전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은 많은 부부들의 관계를 지켜주는 강력한 능력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부부는 그날의 분노는 그날 해결하자고 다짐하는 규칙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만일 서로가 세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분노의 마음을 다음날까지 품고 가게 된다면 부부관계는 급속히 냉랭하게 된다. 그 냉랭함이 자칫하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결혼생활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목표로

한다면 말씀의 근거 위에 부부가 세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부부는 성경의 말씀 위에 다양한 규칙을 세우게 된다. 우리 부부는 어떤 규칙을 세웠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규칙은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동차 옆자리에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태우지 않는다, 나이와 관계없이 다른 이성과 스킨십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다른 이성과 단둘이 남게 되는 모든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혹시나 단둘이 남게 되는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에게 반드시 상황을 알린다 등의 약속은 부부의 결혼생활을 지키는 견고한 규칙이 된다. 부부가 서로 동의하에 세운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외도를 경험하는 사람 중에는 규칙을 너무 쉽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이성과 단둘이만의 접촉상황을 계속해서 허용한다면 견고한 결혼 관계는 자신들도 모르게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로가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규칙들이 무엇이며, 그 규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결혼생활에 갈등이 깊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세운 규칙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부부가 서로 치열하게 갈등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부부가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갈등상황을 피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규

칙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비속어 사용하지 않기’라는 규칙을 세운 부부가 있었다. 부부가 감정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말다툼하면 어김없이 거친 말이 오갔다. 거친 말을 몇 번 주고받게 되면 서로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비속어를 써가면서 서로를 모욕하고 경멸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서로의 관계는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는 처지가 됐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몇 번 거치고 나서 그 부부가 규칙을 정했다. 아무리 감정이 좋지 않아도 서로에게 ‘욕’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그 규칙을 잘 실행하기까지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합의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노력의 결과로 부부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부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더라도 욕을 포함한 비속어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규칙이 지켜지면서 갈등이 생겨도 부부의 관계가 이전처럼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익숙했던 부정적인 부부의 패턴으로 가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이끌림이 있었지만, 부부가 세워놓은 규칙이 새로운 부부관계로 이끌어 가기에 충분한 역할을 했다.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부부의 규칙을 통해서 부부가 더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

게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감정이 격해질 때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겠다는 규칙을 세운 부부도 있다.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격식을 차리면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부부의 관계를 망치는 확률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부부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실수와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회피하고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직면해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부부의 규칙’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요일 3:18~24).

나눔: 부부가 세운 부부의 규칙이 무엇입니까? 만일 잘 지키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 규칙을 잘 지킨다면 부부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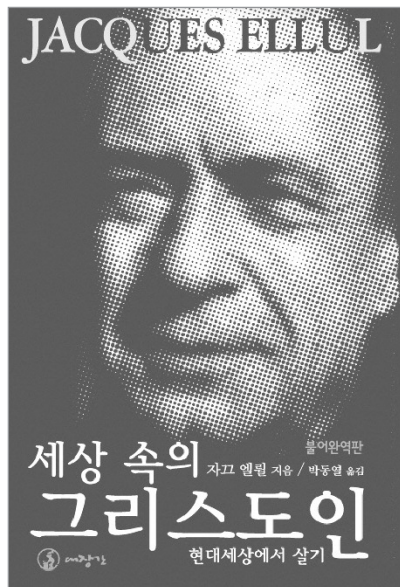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소금, 빛, 양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자크 엘뤼 저 | 대장간 | 10,000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는 단순하면서 묵직한 질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아침에 가족을 마주할 때, 도로 위에서 운전할 때,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등 다양한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민한다.

하나님 구원의 과정에서 간혹 우리의 호기심이 충동하는 지점은 왜 칭의(稱義), 성화(聖化), 영화(榮化)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 된 세상 가운데 죄인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믿음과 경험이 불일치하는 ‘경계적 긴장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차이와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하는 이중적이고 경계적인 위치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태이다. 이 말을 액면으로만 받아들이면 자칫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좋은 게 하나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미안이나 실패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완벽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공로를 더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에 예수님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할 분량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복음적 고민과 생각을 담고 있다.

자크 엘뤼는 1948년 이 책을 출간했다. 반 세기가 훌쩍 넘은 오늘날 우리는 그가 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마치 현시대의 이야기를 풀어낸 것만 같은 공감과 도전을 얻을 수 있다. 오랜 시간을 넘어 저자와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서로 다른 두 시대 간의 죄의 연속성과 시대를 초월한 복음의 영원성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책 곳곳에서 그가 경험한 세상의 중요한 문제들, 특히 그리스도인이 자각하고 회복해야 할 영역들을 지적한다. 현대 문명에서 세상의 죄는 더욱 집단화되고, 구조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세상은 사실에 대한 논리적 판단에 종속되어 살아간다. 세상은 자신의 연약한 영적 실재를 스스로 깨달을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성숙이원론에 빠져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모든 일을 ‘기독교화’하려 시도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 소금(마 5:13), 빛(마 5:14), 양(마 10:16)이다. 이는 하나같이 죄악 된 세상 속에 구별된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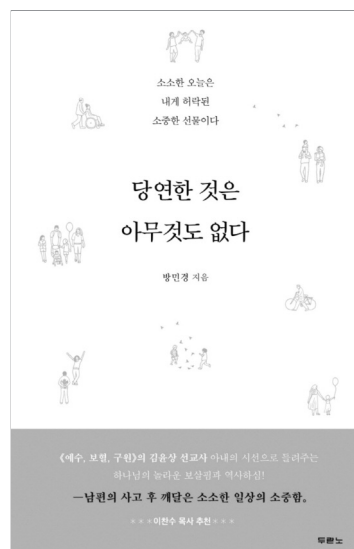
광을 드러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는 것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이 신앙의 결립들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세상이 죄를 덜 짓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시에 있는 그대로 죄 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영적 긴장을 직시하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진정한 영적인 어려움을 발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혁명적인 존재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죄악 된 세상에서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지라도, 세상은 새로운 길과 소망을 보여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를 위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한다.

김윤식 목사
(W청년부)

두란노 신간

되찾은 일상의 기쁨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방민경 저 | 두란노 | 13,000원

백한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이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고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임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있는 성도,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고비를 만난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상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 회사나 학교에 가는 것, 밤에 잠이 드는 것까지 소소해 보이는 이 모든 일이 소중해지는 때가 있다.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모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때다. 그제야 인생의 모든 일이 어느 것 하나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책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의 저자 방민경 선교사도 그랬다. 남편 김윤상 선교사(〈예수, 보혈, 구원〉 저자, 멕시코 익투스 선교공동체)가 혼수상태에 빠졌던 24일 동안 소소한 일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됐다. 느닷없이 찾아온 위기로 깨져버린 일상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 깨달음과 은혜를 책에 담았다.

이 책에는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아내로서, 세 아들의 엄마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기록해두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앞으로 걸어가갈 모든 인생 여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담담히 고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러셀 블레이즈델 목사

6.25 한국전쟁 당시 10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다.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한반도 전역에서 1만여 명의 전쟁 고아들의 생명을 구했다. 미 제5공군사령부에 군목으로 참전한 러셀 블레이즈델 목사도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이른바 ‘유모차 작전’으로 1,000여 명의 전쟁고아를 구출했다.

1937년 매코믹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러셀 블레이즈델 목사는 1940년 미 육군 항공대에 입대한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0년 7월부터 미 제5공군사령부에 군목으로 참전한다. 1950년 9월 인천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탈환하고, 러셀 블레이즈델 목사는 동료 군목인 월레스 울버튼 목사와 서울의 고아를 돌본다. 1950년 10월 평양을 탈환한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을 향해 진격했다. 이에 미군이 38도선을 넘어올 경우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한 중공군이 전면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북한에서 국군과 유엔군을 밀어낸 중공군은 서울을 위협하기에 이른다.

1950년 12월 19일 러셀 블레이즈델 목사는 인천항을 통해 고아들을 제주도로 피신시키려 했다. 3일에 걸쳐 고아들을 인천항으로 후송했지만 선박이 도착하지 못했다. 다급해진 러셀 블레이즈델 목사는 미 제5공군사령부 작전국장 로저스 대령에게 호소한다.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김포 공군기지에 아이들을 데려오라”는 답변을 받고 1,000여 명의 고아를 후송할 차량을 급하게 찾기 시작한다. 비행기 이륙까지 15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땅한 차량이 없어 낙심하려던 차에 마을에 세워진 해병대 차량을 발견한다. 상부의 지시라는 거짓 지시로 해병대 트럭 14대를 징발했고 밤새 1,000여 명의 고아를 김포로 후송한다. 2시간이나 늦었지만 고아들은 수송기를 타고 제주도로 대피할 수 있었다. 이 작전이 바로 ‘유모차 공수작전’이다. 러셀 블레이즈델 목사는 해병대 트럭을 징발한 죄로 군법 재판에 부쳐진다. 훗날 러셀 블레이즈델 목사는 “고아 구출 작전은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었다”고 고백했다.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예배”

서빙고 아랍어예배 창립 20주년



아랍어예배 창립 20주년 감사예배에서 박웅철 전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아랍어예배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월 6일(주일) 안산시 헤브론 카페에서

서빙고온누리교회 아랍어예배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노규석 목사, 신현승 장로,

박웅철 전 대사(주 예멘 대한민국 대사관), 아랍어예배 성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규석 목사는 “아랍어 예배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박웅철 전 대사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는 아랍에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아랍어 예배를 20년째 섬겨온 박미애 전도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서빙고 아랍어예배를 20년 동안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차 공간 사용 제한

3월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일부 주차 공간 사용이 제한된다. 도로부지 소유자(신동아건설)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로 본관과 선교관 앞 도로 공간에 주차할 수 없다. 교회 방문 차량이나 성도들은 교회 내부에서 선교관 지하주차장, 공원 뒤편

주차장, 동작대교 아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외부로는 국립중앙박물관, 동작대교 고수부지(개별주차 후 도보 이동), 거북선나루터(일요일 셔틀 운행, 3월 20일부터)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20

故 장응복 장로 소천

‘벌어서 남 주자’ 숭선수범

근검절약해 모은 재산 113억 원을 한동대 장학금으로 기증한 장응복 장로(서빙고공동체)가 지난 3월 6일 노환으로 소천했다. 향년 95세. 3월 9일故 장응복 장로 천국환송예배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강신의 장로 기도, 한동대학교 카우치워십 특순, 장로합창단 조가(弔歌), 이재훈 담임목사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 성도, 목회자, 유가족, 한동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사망을 이긴 승리’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장응복 장로님이 남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며 “귀한 장로님의 믿음을 본받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최도성 장로(OCC공동체, 한동대학교 총장)는 “장응복 장로님을 떠나 보내 매우 슬프고, 우리의 삶이 장응복 장로님의 신념처럼 ‘벌어서 남 주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애도해했고, 정파종 장로(강남E공동체)는 “후배 장로들에게 귀감이 되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사신 분”이라고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김인에 자매(한동대)는 “장응복 장로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닮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응복 장로는 2007년 온누리교회 명예장로로 장립됐다. 의사로 1991년 은퇴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환자들을 진료했다. 장응복 장로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250명이나 된다.

2022년 하반기 결혼예배 예약

3월 22일 오후 7시 양재 드림홀

2022년 하반기(8월~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을 한다. 3월 22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2층)에서 추첨한다.

결혼예배 예약을 하려면 예비 신랑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어야 한다. 예비 신랑신부는 반드시 등록교인이어야 한다(타 교회 가능). 예약금 50만 원과 예비 신랑신부의 교

인확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결혼예배 예약 장소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수 있다. 제비뽑기로 순번을 추첨하고 순번대로 결혼예배 날짜를 선점한다. 결혼예배 주례는 온누리교회 목사만 가능하고, 결혼예배는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드린다.

문의: 02-570-7505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 모집

3월 20일~5월 29일 매주 목 오전 10시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3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유튜브)에 강의 동영상상이 게시된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목요일과 토요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해 조별모임을 한다. 온누리전도학교 개강예배는 3월 20일 주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드린다. 수강신청은 3월 2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

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필독서, 전도지, 교재비 포함).

온누리전도학교는 복음을 누구나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5219-8707,
010-9701-9754

젊은부부학교 지원자 모집

젊은부부학교 지원자를 모집한다.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2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10만 원이다.

문의: 010-2086-8210

프리덤스쿨 참가자 모집

프리덤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16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3896-2477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보도록 돕는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세미나가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다. 류현모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강의한다. 세계관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2-2078-3265

포천하랑센터 한국어 봉사자 모집

‘포천하랑센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4 우주빌딩 2층)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주 1회(주중 혹은 주일) 결혼이주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한다. 문의: 010-8937-4766

제38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보라 통독〉

두란노서원이 발행한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팀 켈러 목사 저), 〈보라 통독〉(이상준 목사 저)이 제38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한국기독교출판협회 주최)을 수상했다.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가 신앙일반 국외 부문 최우수상, 〈보라 통독〉이 목회자료 국내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발행된 서적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12명이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 〈읽는 설교 요한계시록〉(조이복스) 외에 분야별 최우수상 1권, 우수상 2~3권씩 총 29권이 선정됐다.

3월 화요성령집회 ‘회복의 시작’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3월 화요성령집회가 시작됐다. ‘회복의 시작’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3월 화요성령집회 ‘회복의 시작’에서는 1일 김승수 목사 ‘이 땅을

회복하소서’ (대하 7:12~18), 8일 김윤식 목사 ‘권세를 회복하소서’ (행 3:11~26), 15일 김승수 목사 ‘믿음을 회복하소서’ (히 11:32-12:2), 22일 이서진 목사 ‘예배를 회복하소서’ (롬 12:1~2), 29일 김승수 목사 ‘부흥을 회복하소서’ (렘 1:3~11)를 주제로 설교한다.

두란노서점 서빙고점 할인 이벤트

현혈 사진, 현혈증 제시하면 10% 할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 나눔의 기적’에 참가한 성도들이 구매한 제품을 10% 할인해준다(일부 품목 제외). 현혈증이나 현혈 인증 사진을 보여주면 된다.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02-796-2310)나 문자메시지(010-3229-2310), 온라인(www.duranno.com/store/onnuri)으로도 주문할 수 있다. 10% 할인도 똑같이 적용한다. 문의: 02-796-2310

와이무슬림 참가자 모집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와이무슬림에서는 ‘이슬람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과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이슬람의 예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문의: 010-5557-8924

■ 신임 순장 각오



/ 오주는 자매(브릿지33+공동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순장

‘나는 어떤 순장이 되고 싶은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브릿지33+공동체에서 만난 나의 첫 순장님이다. 브릿지33+공동체는 내 인생 첫 믿음 생활을 시작한 공동체다. 그곳에서 만난 나의 첫 순장님은 단아한 외모만큼이나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분이였다. 늘 잠잠하게 순원들을 품어주셨다. 순장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였다. 아직 믿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초신자였던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강권하거나 답을 알려주기보다 조용히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두 손 모아 기도해주셨다. 호기심이 많은 나를 위해 화요성령집회와 목요경배와찬양집회에도 동행해줬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아낌없이 나에게 부어주었다. 모든 것이 낯선 나에게 교회라는 곳이 따뜻한 곳임을 알게 해줬다. 그때 그 순장님이 나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사랑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 나도 그 순장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순장이 되고 싶다.

공동체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건강이 악화

해 한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목사님을 비롯한 지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줬다. 영과 육이 쇠약해진 나에게 공백이 없도록 신경을 써줬다. 그래서 나는 브릿지33+공동체가 애뜻하고, 감사하다. 공동체에 항상 빛진 마음을 갖고 있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공동체에 훌륭한 지체들이 많았고, 아직 하나님이나를 사용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부족하고, 하루가 멀다고 크고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앞에 서서 품고, 보살피는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처음 순장 제안을 받고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것이다. 끊임없는 기도로 주어진 순장 직분을 능히 감당하고 싶다. 순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순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합심해서 선을 이루는 순이 되기를 소망한다.

■ 알콩달콩부부학교 수료 소감



/ 강요엘 선교사(중앙아시아 K국)

나의 영원한 동역자와 함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선교지에서 사역했다. 2020년 잠시 한국에 귀국해 있는 동안 아내의 큰 수술과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져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 있어야 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내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고, 다시 선교지로 나가야 할 때라는 마음이 들어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다. 선교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다가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집사님을 통해 알콩달콩부부학교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목사, 선교사 부부학교로 진행된다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입학을 신청했다.

알콩달콩부부학교에 들어가기 전 우리 부부 안에 큰 영적 전쟁이 있었다. 참사를 포기해야 하나 싶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부부를 위해 마련해주신 좋은 기회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화해하고 참석했다. 그 깨달음대로 참여한 알콩달콩부부학교는 우리 부부를 위해 마련된 자리 같았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다.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비난하고 회피하고, 무시하고, 싸우고 휴전하고 다시 싸웠다. 서로 자기만 아프다고 상대방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부부였다. 알콩달콩부부학교에서 존경받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부부의 연합을 깨는 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도 다시금 알게 됐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데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이제 다시 선교지로 나간다. 주님께서 자격 없고 부족한 나에게 아내를 붙여주셨다. 나의 영원한 동역자와 함께 복음과 심자가를 가슴과 영혼에 간직하고 가려 한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전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이 될 것이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우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알콩달콩부부학교에도 감사를 드린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믿음, 언약, 온유(중앙아시아 B국)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신지 안부를 여쭙니다. 저희도 잘 버텨왔는데 오미크론 확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 아내가 조금 많이 아팠는데 다행히 입원하지 않고 자택치료로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폐가 많이 손상되었는데 예전 같은 상태로 회복은 더딘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준비한 비접촉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한약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힘드시 텐데 모두 힘내십시오.

저희 아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사춘기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기도록,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 그분과 동행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올해 비자 갱신을 해야 하는데 서류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비자 기간이 1년짜리를 취득할 수 있기를,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온유가 성도님

들께 편지를 남겼습니다. 온유를 위해서도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개학하기 전에 여러모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8학년, 한국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인데 일부 과목에서는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반이었고 친했던 친구가 다른 도시로 전학 가서 조금 섭섭합니다. 요즘 진로 고민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대학교 진학과 졸업 이후 취업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은 걱정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로를 잘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생 기쁨이가 13살이 된 이후 서로 부딪치는 일이 잦아져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창 예민할 나이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서로 사소한 일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 기도하며 노력 중입니다. 요즘 그림에 엄청 열심입니다. 틈날 때마다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친구들과 그림도 교환하며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름다운동행 수료 소감



/ 엄준용 목사(미국올랜드아름다운교회)

지혜롭고 건강한 경계선

우리 부부는 친구의 추천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아름다운동행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름다운동행의 첫인상은 편안함이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마음을 열게 했다. 특히 조장님과의 일대일 만남이 우리 부부에게 즐거움과 반가움을 줬다.

사실 지금까지 목회자가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 참여한다는 것이 흔하지 않을뿐더러 부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아름다운동행은 내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정리하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건강한 경계선’이라는 주제로 내 삶과 목회와 가정을 반추하면서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 모든 면에서 일방적인 나의 모습이 적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자녀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교훈하고 안내하는 면이 많았다. 부부 안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교감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데 그렇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모든 일을 무조건 신앙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몰고 가려는 나의 경향이 아

내와 자녀를 참 힘들게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고 쑥스러웠다.

앞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해야겠다. 아내에게는 자상한 남편이요, 자녀들에게는 따뜻하고 편안한 아빠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다. 새롭게 나를 비춰보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참 감사하고 유익했다.

가족뿐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에게도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지혜롭고 건강한 경계선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름다운동행은 그야말로 공사 중이었던 우리 부부를 아름다운 커핑으로 다시 빚어주는 다이아몬드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름다운동행을 위해 기도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주신 모든 스테프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장로칼럼

복음 통일과 통일선교학교

임현태 장로
(남양주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통일은 하나 되는 것이다. 성경적 통일은 남북한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 됨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부터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여러 통계자료를 봤더니 한국 교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 통계자료에서는 2030세대의 70% 이상이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2030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대부분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가운 통계도 있다. 통일부의 발표에서는 10대 60% 이상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지금 2030세대처럼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흔하게 다음세대에게 어필하는 통일의 장점은 경제적 이점이다. 남한의 경제력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육로가 합쳐지면 시너지를 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 평생 통일 비용을 부담하며 살아야 하는 2030세대들에게는 경제적 이점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 막힌 답을 열어내고 하나가 돼야 한다. 구약의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처럼 동질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통일이 무엇인가로 육신각신하기도 한다. 복음보다 정치적 이념을 다룬다. 그러나 복음은 이념보다 크다. 한국 교회부터 복음 통일이 무엇인

지, 하나 됨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고 기도해야 한다.

탈북민들은 복음 통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탈북민 대부분이 생각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좋은 것들을 고향의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탈북민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 탈북민들과 여러 해를 보내면서 생각과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통일 이후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북민들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탈북민들을 잘 양육하는 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탈북민들을 잘 섬기면 그들에게 복음 통일이 무엇인지, 복음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다. 교회 안팎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요즘 북한이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들을 발사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북한이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에서는 복음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 통일 선교관을 정립하고, 복음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통일선교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통일선교학교는 5주 과정의 양육이다. 2학기부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온누리교회 안팎에서 탈북민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의와 성경적인 통일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것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시청각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통일사역에 새롭게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적다. 통일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남북한과 세계정세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권사칼럼

제비가 와야 봄이 온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행복한 왕자>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보 왕자다. 가만히 있었으면 행복한 왕자로 남았을 텐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다.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왕자 동상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행복

한 왕자’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자신의 발아래로 보이는 불행한 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왕자는 그들을 보며 안쓰러워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자신의 옷과 장신구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도 동상인 몸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가던 제비가 왕자의 동상에서 하룻밤 머무르게 됐다. 그 밤에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눈물을 맞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 왕자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제비는 왕자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석을 전해주는 심부름을 했다. 한 번만 해주고 떠나겠다던 제비는 심부름을 하면서 묘한 기쁨을 느꼈다. 병들어 죽어가는 소녀가 눈을 반짝이고, 굶어 죽어가는 노인이 살아나며, 웃음을 잃어버린 청년이 웃음과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왕자가 자신의 것을 나눌수록 사람들 눈에 비치는 행복한 왕자의 모습이 점차 흥측하고 바보스럽게 변해갔다. 따뜻하고 편안한 곳으로 날아갈 생각을 미웠던 제비도 점차 바보 제비가 되어갔다. 왕자의 심장이 박살나던 날 제비도 같이 동사하고 만다.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가 불행한 왕자로, 제비 역시 불쌍한 제비가

됐다며 허를 찼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행복한 왕자로, 행복한 제비로 거듭났다.

나는 바보 제비가 다른 세대와 잘 교류하지 못하는 외롭고 힘없는 노인이거나 세상살이가 힘겨워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청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자가 흘리는 눈물이 마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 흘리는 눈물임을 알고 왕자의 청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제비는 심부름하면서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사랑하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

크리스천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 전도는 밤중에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과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보석(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도는 무슨 전도, 씨도 안 먹힐걸!”이라며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상황이 어떻든, 누가 뭐라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전도할 수밖에 없다.

문득 프레드릭 왓츠의 ‘소망’이란 그림이 생각난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동그란 지구 위에 앉아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이다. 여섯 줄이 끊어졌고 달랑 한 줄만 간신히 붙어 있다. 여인은 마지막 한 줄로 조심스럽게 연주하고 있다. 명예, 권세, 경제, 건강, 관계의 줄이 다 끊어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한 줄과도 같은 세상의 소망이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눈을 들어 주변을 보자. 인생의 줄이 다 끊어진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줄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라고 복음을 입에 물고 다니자.

제비가 와야 봄이 온다. 코로나19라는 인생의 겨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생의 봄이 온다.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제비가 된다

신앙에세이

이진기 전도사
(여호수아청년부)

매년 찾아오는 행복한 날이 있다. 성탄절이다. 춘분을 앞둔 이 시점에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때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성탄절을 생각하면 때와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다.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구제와 봉사를 하기도 한다.

성탄절과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날이 있다. 바로 부활절이다.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날이다. 사순절은 부활절부터 주일을 제외

하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간 ‘재의 수요일’부터 ‘고난주간’을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기간이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순례를 따라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관계의 어려움, 신앙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처 입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분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다. 사순절 기간 다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린 시절 다니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이면 어린이 성극과 중고등부의 합창을 특순으로 준비했다. 학교가 끝나면 삼삼오오 교회에 모여서 너 나 할 것 없이 가방을 벗어 던지고 예배당 한쪽에서 성극 대본 연습과 합창 연습을 했다. 성인이 되면서 부활절이 다

가오면 생각나는 것이 바뀌었다.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 사순절이다.

사순절에 대한 오해가 있다. 사순절이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고난만 묵상하며 고초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금식이나 미디어 금식(SNS, TV, 인터넷 등 자제) 또는 새벽예배, 주중예배, QT 등의 노력과 믿음의 결단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산 제사이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순절의 고난이 주는 진정한 의미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첫째, 고난은 부활의 마중물이다. 고난을 통해 이 시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 교회는 더욱 단단해졌다. “고난을 겪을 때 하게 되는 기도는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말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약 1:2)라고 말했다. 고난

을 기쁨으로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고, 마지막 부활의 때에 굳게 서게 한다.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한다.

둘째, 고난은 세공하지 않은 보석이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필립 안시는 그의 책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오해와 오랜 침묵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고, 시련과 승리가 함께 있다. 완전함에 도달하려면 경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 자체가 뛰어난 믿음과 용기이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세공하는 과정이다. 세공에 드는 값이 바로 ‘기다림’이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묵상하며 고난의 끝에서 만나게 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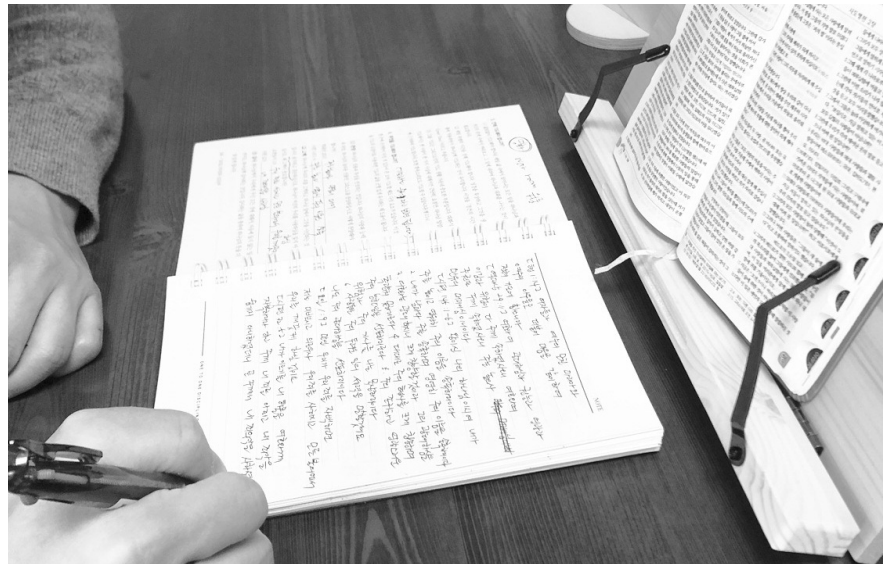
코로나19, '일대일제자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교회 생활은 고등학교 1~2학년 때가 유일했다. 서비스직이라는 직업 특성상 주말에는 언제나 일을 했다.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에게 일요일은 고객이 많은 날에 불과했다.

아내와 긴 시간 갈등이 있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아내를 비난했다. 나에게 없는 공감 능력이 아쉽기는 했지만, 그조차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 힘든 시간 아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기도를 계속했다. 처절하게 울부짖는 아내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착잡한 마음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종교가 있는 아내가 부럽기도 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통과 고민을 오직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도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아내에게 들은 말인데 그렇게 울부짖으며 “남편이 주말에 쉬고 같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 또한 10년 만에 이직이라는 큰일을 준비하게 되었다. 주말이 있는 삶을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직업을 바꿨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갔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참 좋았다. 편안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찬



신재순 성도(강남D공동체)가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하고 있다.

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

양재온누리교회에 젊은 부부 위주의 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온라인 순예배를 드렸다. 순원들은 우리처럼 또래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었다. 초신자인 나에 비해 순원들의 신앙이 깊어 보였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감되지 않았다. 게다가 모르는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편했다. 그 와중에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했다.

몇 년 전 아내가 일대일제자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양육자님과 직접 만나서 할 텐데 현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일대일제자양육이 모두 끝난 지금은

그 시간이 얼마나 뜻깊었는지 감사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는 것”이라는 양육자님의 말씀에 신약성경부터 구약까지 읽고 있다.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펴놓고 다음 주 내용을 미리 공부할 때마다 너무 즐거웠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성경을 매일 읽고 공부하면서 낯설게 느껴졌던 교재가 어느새 익숙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매주 온라인 순예배에 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변했다.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은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양육자님의 도움 덕분이다. 나 같은 초신자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서원석 양육자님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양육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 같다. 올바른 개념과 믿음의 강건함을 경험하게 해준 온누리교회에 감사하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는 못하지만, 더욱 신앙이 성숙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온누리교회 목사님들과 일대일제자양육 모든 양육자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

/ 신재순 성도(강남D공동체)

교회의 사회적 책임



백종신 장로
(사회선교부 새사람
사역팀)

여기 우는 사람들이 있다.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가족을 생각하면 미안해서 운다. 그들은 재소자들이다.

사회선교부 새사람 사역팀은 재소자들과 함께 울며 기도한다. 일대일제자양육

을 하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재소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사람사역팀은 현재 12개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등 포함)에 큐티잡지 <생명의 삶>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소자에게 영치금을 지원하고,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주 사역지는 소망교도소(여주시 소재)다. 새사람사역팀은 소망교도소와 협력해서 재소자들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위해 일대일제자양육, 큐티, 멘토링 등을 사역자(봉사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새사람사역팀은 매주 목요일 새벽을 깨운다. 새벽기도를 하고 오전 7시에 모여 중보기도를 한다. 오전 10시 소망교도소에 도착해서 오후 3시까지 재소자들과 함께 일대일제자양육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새사람사역팀'



새사람사역팀이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에게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벌써 2년 넘게 휴업(休業)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봉사자들의 교도소 출입이 막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전 일이다. 어느 때와 같은 목요일 소망교도소로 향하는 중이었다. 한 권사님께서 “오늘 제가 일대일제자양육하는 형제가 가석방된다”면서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던 그 형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버스에서 우리 모두 기뻐했다.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참으로 감사했다. 오해와 분노, 좌절로 힘든 수형 시간을 보내던 형제가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회복되고 모범 수형자로 가석방되는 복을 받았으니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역팀 모두의 행복이요, 기쁨이었다. 그날 일대일제자양육을 마치고 가석방되는 형제를 강당 앞으로 초대했다. 간단한 간증과 인사말을 듣고, 사역팀 봉사자 모두가 그 형제에게 손을 얹고 감사와 파송의 기도를 했다. 함께 교육받

는 재소자들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했다.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사회로 나갑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사회로 나갑니다. 지켜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즈음 재소자 한 명이 와서 말했다.

“마치 천사들이 축하하며 제자를 파송하는 듯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여운이 가지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가석방되어 동일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밀려왔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재소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새사람사역을 통해서 재소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그들이 변화하고 결단하는 은혜를 보았고 누렸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한다.

“속히 재소자들과 만남으로써 함께 울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주세요”

간간이 소수의 방문이 허락되는 날이면 벽간 가슴을 안고 여주로 달려간다.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좋아하는 간식과 사랑을 가득 신고서 말이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고 싶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문의: 02-3215-3434, 3436



풍당 신규 콘텐츠와 함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봄날 되세요!



레알캠핑

캠핑하면서 성경을 배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레위기를 쉽게 배우는
캠핑 강의

출연: 김경열 목사(말씀의집 대표), 개그맨 정범균



씨네클래스

‘엘 샤다이’ 원곡자 마이클 카드와
그의 멘토의 감동 실화를 다룬
영화 <더 워크>의 성경적 의미를 나누는 강의

강사: 뱀살롬교회 김형익 목사



‘풍당’ 시청방법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풍당’ 검색 후 다운로드



스마트TV로 시청하기

LG, 삼성 스토어에서
‘풍당’ 검색 후 설치



PC로 시청하기

www.fondant.kr

문의 02-792-0691